

# UN 중남미 경제위원회, 2013년 중남미 경제전망 하향 조정

작성자 : 이시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원)

작성일 : 2013년 8월 9일

■ UN 중남미 경제위원회(ECLAC)는 지난 7월 24일 2013년 중남미 경제전망치를 기존보다 0.5%p 낮춘 3%로 조정 발표함.

- 브라질, 멕시코는 기존 경제 전망치보다 더 낮은 2.5%, 2.8%로 각각 하향 조정됨.
- 그동안 높은 성장세를 유지해 오던 칠레, 파나마, 페루의 성장세는 주춤할 것으로 전망됨.

표 1. 2010년~2013년 중남미 주요 국가들의 실질GDP 변화율

	2010	2011	2012	2013e
아르헨티나	9.2	8.9	1.9	3.5
브라질	6.9	2.7	0.9	2.5
칠레	5.8	5.9	5.6	4.6
콜롬비아	4.0	6.6	4.0	4.0
멕시코	5.3	3.9	3.9	2.8
페루	8.8	6.9	6.3	5.9
베네수엘라	-1.5	4.2	5.6	1.0
파나마	7.5	10.8	10.7	7.5
중남미	5.7	4.4	3.0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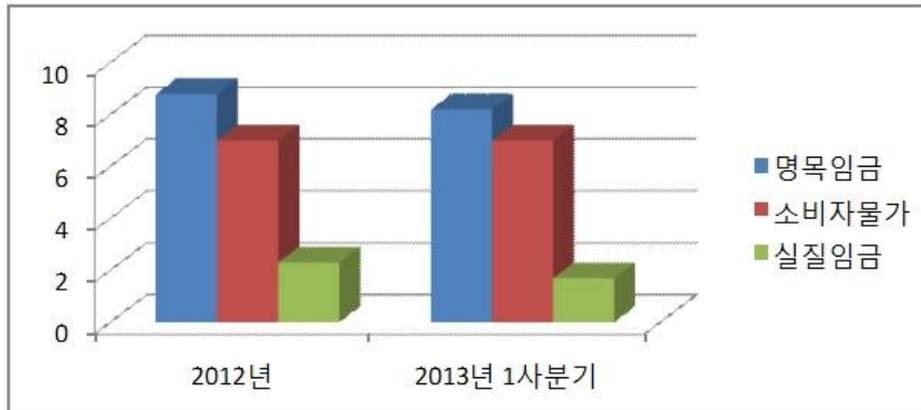
자료: Economic Comission for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주: 각국의 GDP는 2005년 USD 기준

■ 전망치 하향조정的主要原因은 외부 수요 감소와 내부 경제활동 저조화로 분석됨.

- 주 수출지역인 유럽지역의 경기 악화(2013년 -0.4% 전망)로 인한 수출량 감소, 중국의 저성장(2013년 7.8% 전망)으로 인한 원자재 수요 감소에 따른 수출상품 가격 하락으로 순수출 가치는 감소할 것으로 보임.
  - 2013년 수출 가치는 4% 상승, 수입 가치는 6%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 교역조건 악화에 따른 영향은 국가마다 상이하며, 특히 광물과 강철 수출국(칠레, 페루, 수리남)의 교역조건 악화에 따른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보임.
- 그동안 지역의 경제성장을 견인해온 민간소비는 주춤할 것으로 전망되며, 2013년 1사분기 소비는 전년 동기대비 3% 상승하는데 그침.
  - 특히 역내 물가상승률이 높아 실질임금 상승률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일자리 창출이 잘 이루어 지지 않아 고용률 역시 전년과 비슷한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임.
  - 또한 2013년 상반기 페루와 콜롬비아, 특히 브라질과 칠레의 가계 대출은 2012년에 비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1. 중남미 주요 9개국의 임금 및 물가상승률 변화율



자료: Economic Commission for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 2013년 1사분기의 총고정자본형성은 전년 동기대비 0.4%p 하락한 3.3%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건설부문 활동 저하에서 기인함.

■ ECLAC은 외부 경기에 취약한 중남미 경제에 대해 성장원 다변화와, 안정적인 상황에서 성장을 도모하는 신중한 거시경제 정책을 펼칠 것을 제안함.

- 1차 상품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중남미 경제는 교역조건에 지나치게 민감함을 보여 왔음.
- 중남미의 많은 국가들이 정치·경제적 불안정으로 인해 외부 금융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어 있음.
- 투자 부족과 낮은 노동 생산성은 중남미 경제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옴.
- 더불어 역대 높은 물가상승률로 경기 역행적(countercyclical) 통화정책의 효과가 반감될 수 있음을 경고함.
  - 2013년 5월, 중남미 국가들의 12개월 물가상승률 평균은 6%로 2012년 12월(5.5%), 5월(5.8%)보다 높으며,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와 같은 일부국가는 두 자리 수를 기록함.

〈자료: Economic Survey of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América Economía 등〉